



KINU 통일 나침반

2015. 01. 15. • UC 15-01 •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소장)
- 홍 민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김석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 김갑식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박영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송영훈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신종호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 정성윤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 정성철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홍석훈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I. 전반적 특징	1
II. 2014년도 평가	5
1. 총평	5
2. 정치	5
3. 경제	6
4. 군사	6
5. 사회·문화	6
6. 대남	6
7. 대외	6
III. 2015년도 과업	7
1. 정치	7
2. 경제	8
3. 사회·문화	10
4. 군사	11
5. 대남	12
6. 대외	13
IV. 2015년도 부문별 전망	14
1. 정치	14
2. 경제	15
3. 사회·문화	16
4. 군사	17
5. 대남	18
6. 대외	20
V. 정책적 함의	21
1. 정세 판단 유의사항	21
2. 대북정책 추진방향	23
부록	
1. 2015년 북한 신년사 원문	25



I. 전반적 특징

○ 정책 목표 제시

- 2015년 신년사는 조국해방 및 당창건 70돌을 맞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
- 대내외 정세에 대해 정치사상적 통제 강화, 혁명무력과 국방력 강화, 과학기술을 앞세워 체제수호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 대내정책 기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와 사상교양 강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통치기반 구축과 운용에 방점
- 국방공업에서의 병진노선 관철,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 강조
- 경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온건하지만 고답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예고

○ 대남정책 기조

- 2013년, 2014년에 비해 대남 관련 언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 하여 2015년 중요 정책적 관심 분야임을 시사
- ‘북남관계 개선’, ‘북남관계 전진’, ‘북남관계 대전환, 대변혁’ 등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5회에 걸쳐 남북관계 개선을 직접 언급(2013년 1회, 2014년 3회)
- 고위급 접촉 재개, 부문별 회담 및 최고위급 회담(정상회담) 수락 용의까지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강조
-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수 열거하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소재와 명분을 드러냄
-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외교적 고립, 남한의 대화공세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임

- 해방 및 당창건 70돌 기념 강조와 방어적 목표 제시
 - 2015년이 매우 뜻깊은 역사적 해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방어적 목표 제시
 -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막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을 강조하며 새로운 목표보다는 체제수호에 강조점을 둠
 - 2014년 ‘혁명과 건설에서의 변영기를 열자’, 2013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 등에 비하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를 보임

- 전투적 구호를 대내외로 이원화하여 제시
 - 2015년 구호로 이례적으로 두 개를 제시
 - ①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대내용), ②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대남용)
 - ※ 2014년 전투적 구호: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 ※ 2013년 전투적 구호: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과업제시 서술 순서의 변화 - 당사업 부문 강조
 - 2015년 과업을 ① 전체목표, ② 당사업, ③ 국방, ④ 과학기술, ⑤ 경제, ⑥ 사회문화, ⑦ 사상(선전선동), ⑧ 간부, ⑨ 대남 등의 순서로 제시
 - ※ 2014년 과업 제시 순서: ① 전체목표, ② 경제, ③ 사회문화, ④ 국방, ⑤ 당사업, ⑥ 사상(선전선동), ⑦ 간부, ⑧ 대남
 - ※ 2013년 과업 제시 순서: ① 전체목표, ② 경제, ③ 국방, ④ 사회문화, ⑤ 사상, ⑥ 당사업, ⑦ 대남
 - 2013,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 부문이 뒤로 밀리고 당사업을 제일 먼저 언급
 - 과업 순서로 본 정책 우선순위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사회주의 문명국, 통일강국 등임

○ 당 중심의 정책 생산과 통치 안정화 의지 표명

- 2013년, 2014년도에 비해 당사업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언급
- 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 강조(“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② 당 정책 무조건 관철 원칙 제시, ③ 당사업의 핵심을 인민생활 향상으로 제시, ④ 당조직과 간부들의 사업태도로 세도와 관료주의 극복 강조, ⑤ 4대 교양사업 강조(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세계급교양, 도덕교양)
- 2014년이 주로 장성택 숙청 이후 ‘당대열의 순결성’과 당 ‘혁명대오의 통일단결 및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5년은 당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임
- 당 중심의 정책 생산 및 무조건 관철을 강조하고 있어, 보다 안정화된 당 중심 통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임

○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 제시

- 군력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은 2014년 12월 1일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제963부대 직속 포병부대의 전투정치훈련 시찰 소식을 북한이 전하며 김정은이 강조한 것으로 소개한 바 있음
- 신년사를 통해서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음
- ① 인민군대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일 것, ② 작전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무적의 강군화, ③ 모든 지휘관, 병사들과 군중, 병종부대들의 사상과 신념의 강자화, ④ 다양한 병종의 강화, ⑤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배격하여 훈련의 질 제고, ⑥ 인민군대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 ⑦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구자(정치사상교양), ⑧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자기 향토 자체 방어할 수 있는 전민항전 준비, ⑨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⑩ 군인들의 튼튼한 체력 강화
- 이런 내용에 기초해 본다면, 군의 실전 능력을 제고하고 핵보유에 따른 무기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김정은식 군사력 강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학기술을 체제 수호와 통치의 수단으로 강조
 - 과학기술을 앞세워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의 전환’을 강조하는 한편 과학기술이 ① 경제발전, ② 국방력 강화, ③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강조
 - 과학기술이 매우 다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 및 체제수호 등 통치의 중요 기초수단임을 시사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과학기술 강조가 통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략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산-금강산 경제개발구 사업 추진의 당창건 70돌 경제 성과화
 -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 피력
 - 마식령스키장 건설 자신감을 토대로 김정은 첫 대형 경제사업 프로젝트이자 당창건 70돌 치적으로 적극 추진 예상
 - 당창건 70돌 목표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 10월 전 완공 등 경제 치적을 위한 건설 동원이 빈번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

- 신년사를 통해 인권문제와 핵 억제력 연계 언급
 - 신년사를 통해 “비열한 인권소동”에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
 -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의제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통해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언급
 - 2014년 4월 4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핵무력 대응을 시사한 이후 최근까지 외무성 및 국방위원회 성명 등을 통해 계속 언급해 왔으나, 신년사에서 공식적으로 인권문제에 핵무력 연계한 것은 처음
 - 2015년에도 국제사회의 북한문제 논의 흐름에 따라 북한의 인권 대응 전략으로 ‘핵무력’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임

II. 2014년도 평가

1. 총평

- 2014년을 “당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로 자평
- 전체적으로 2014년도(전년도) 성과에 대한 언급이 짧아짐
 - 언급 순서는 성과총평 → 국방 → 경제(건설) → 체육성과
 - 특히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 성과에 대한 언급이 2014년 신년사에 비해 대폭 줄어들음
 - 2014년도 신년사는 성과총평 → 종파제거 → 국방 → 경제(농업, 마식령) → 체육·교육·음악예술 등으로 성과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2. 정치

- 당과 주민의 연대가 더욱 견고해졌고 ‘종파청산’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
 -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
 - “지난해 쟁취한 우리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영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
- 수령과 당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와 신념이 더 강화되었다고 강조
 -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
 - “혁명전통교양의 열풍 속에서 전군과 온 사회의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되었”다고 함

3. 경제

-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자평
 - 농업, 수산, 화학, 석탄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고 건설 부문에서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운” 점을 치하
 -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김책공대 교육자 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 8일 공장 등 주요 건설 성과를 자랑

4. 군사

-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다고 자평
-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생활 개선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
- “국방공업부분에서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을 개발 완성하여 혁명무력의 질적 강화”가 있었다고 자랑

5. 사회·문화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우리식의 전법으로 굴함 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었다고 간략히 체육 부문만 언급

6. 대남

- 대남 부문 성과는 언급하지 않음

7. 대외

- 대외정책 성과는 언급하지 않음

III. 2015년도 과업

1. 정치

- 해방 및 당창건 70돌 기념 ‘10월 대축전장’ 제시를 통한 정책 목표화
 - “조국해방과 당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낼 것을 강조
 -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 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을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함을 강조
 -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투쟁구호 이례적으로 제시

- 경제지표 안정화와 대외적 압박을 고려하여 정치사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 고수”
 -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 “위대성 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4대 교양을 강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심화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 “올해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도록 하여야”
 - “당조직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 주민중심(인민대중 제일주의)의 당사업에 역점
 -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키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
 - 인민존중, 인민사랑, 인민의리 기풍 진작

- 동원담론과 헌신성 추동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
 -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강조하면서 노력동원에 활용
 - 조선민족제일주의, 애국헌신의 기풍 등을 거론하며 동원의 자발성 유도
- 간부들의 멸사봉공, 솔선수범 등을 강조
 - “일꾼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 관철하여야”
 - “일꾼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2. 경제

- 경제 분야 과업 제시 내용은 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여 경제정책 노선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김정일 시대에 확립되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
- 산업정책은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기본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
 - 김정일 집권 말기에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강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실제 정책에서는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재건을 계속 추진
 - 2015년 신년사에서 농업, 경공업뿐 아니라 전통적 중화학공업의 진흥 과업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자립경제의 이상을 여전히 강조
- 경제 분야 과업 제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자”고 역설
 - 과학연구 부문에서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을 것을 주문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
 - 그러나 주요 산업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할 것을 주문

- 해외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요 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는 요원
-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강조하고 있으나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획기적 정책 전환은 발견되지 않음
- 농산,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식생활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
 -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협동농장 관리 및 분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단지 과학적 농법의 실행, 축산 및 양어기지의 생산 정상화, 수산업 진흥 등 기술적 과제만을 제시
 - 경공업 부문에서는 중앙과 지방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통해 질 좋은 소비품을 공급하라고 강조
 - 오래 전부터 경공업 진흥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 선행 부문과 기간공업 부문의 과업 제시 내용도 예년과 대동소이함
- 과거와 마찬가지로 석탄과 전력 생산을 늘리고 전기를 절약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
 - 단, 2014년에는 수력, 풍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나, 2015년 신년사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만 언급
 - 수력 발전 등은 기상여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 발전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언급으로 추측
 - 여전히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 등 기간공업 부문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
 - 이러한 노선으로는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낙후한 중화학공업에서 벗어나기 곤란
- 건설 부문 정책 방향도 과거와 비슷하게 제시
- 발전소, 공장, 교육문화 시설과 주택 등 다양한 부문의 건설 과업을 제시
 - 2014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청천강 발전소, 고산과수농장, 세포지구 축산

기지 등 주요 건설대상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강조

- 미래과학자 거리를 주요 건설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과학 부문 우대 정책도 지속
 - 산림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연료 및 농지 부족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어 산림 복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
 - 평양시와 주요 도시, 일터와 마을들의 환경 개선 사업도 주요 과업으로 제시
- 경제관리제도 개선과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강조해온 과업을 되풀이 제시
 -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경제기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라”고 주문
 - 대외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개발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는 등 자립경제 노선도 여전히 견지

3. 사회·문화

-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것을 강조
 - 2014년에 비해 ‘인재화’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교육 부문 과제 제시
- 체육열기를 지속시키고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체육강국 건설의 전망을 열 것을 강조
 - 2014년 내내 체육열기를 강조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성과를 자랑했던 것에 비해 과업의 내용이 단출함
- 문학예술 부문은 “침체”를 극복하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이 더 많이 창작”되어야 함을 강조
 - 이례적으로 “침체” 극복을 강조하고 있어 문학예술 부문에 대한 내적 총

화에서 일정한 비판이 있었음을 시사

- 2015년 신년사 사회문화 부문 과업 제시 중 특이점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강조한 부분
 - “은 사회에 민족적 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며 민족유산 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애국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
 - 언급 이유는 오랜 경제난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정비 강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육성의 맥락 등에서 볼 수 있음
- 2014년과 과업과 비교했을 때,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새로 내용적으로 추가 되었으나 거의 유사하고 내용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음
- 특징 중 하나는 신년사 맨 앞 인사부분에 ‘어린이들’을 새롭게 추가한 부분
 - “은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
 - 2014년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과 2014년 애육원, 고아원 현지지도를 통해 인민 친화적 행보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도 있음

4. 군사

-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칠 것을 제시
-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군력강화의 전략적 노선과 과업 관철 강조
 - 특히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을 강조
- 2014년과 유사하게 전투정치훈련 강화를 강조

- 불시에 군대를 방문하여 사격 및 포격 훈련 검열하는 김정은식 군대관리 방법 차원에서 실전 능력에 대한 강조

○ 당의 병진노선 관철과 국방공업 부문 강조

- ‘당의 병진노선 관철’을 강조하는 한편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 적극 개발 강조
- 2014년도 국방공업 부문에서의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된 현대적 무장장비’와 유사한 맥락이나 미묘한 차이

○ 김정은이 2014년 내내 강조해 온 인민군대 후방사업 획기적 전환 강조

5. 대남

○ 2012~2014년과 달리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의지에 큰 비중을 두는 한편 ‘통일강국’을 처음 강조

- ‘조국해방 70돌’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 반제·자주 정책 고수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김정은의 통일리더십 및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 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 세워야” 한다고 ‘통일강국’을 과업으로 언급

○ 올해 북한 대남·통일정책의 총적 기조는 ‘조국해방 70돌’에 초점을 맞춘 “자주통일의 대통로” 확보,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

- 이를 위해 남측의 미국과 거리를 둔 ‘대담한 대북 정책전환’ 촉구
-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기초한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공동의 이익” 추구 제기

○ 이 총적 기조를 수행하기 위한 2015년 강온양면의 대남정책 방향 및 남측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적으로 제시

- 통일 및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향후 전개될 북측의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한 선제적 정당화 의도
 -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위협과 평화공세’ 동시 주장
-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남북관계를 활용하기 위한 2015년 남북 교류 및 협력 방향을 세부적으로 제시
- 대북지원 확대 등을 의도한 남북교류 강화 및 남북 정상회담(“최고위급 회담”) 가능성 언급
 -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 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며 경제 및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와 협력 요구
 -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회담 의지 표명
 -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남북한 정상회담 수락 가능성 언급
-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압력에 핵 억제력으로 대응 시사
-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

6. 대외

-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대외정책 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의 입장은 유지
- 주목할 부분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화의 원인을 북미갈등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설명하는 부분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북한의 핵자위권과 정권 압살이 불가능하자 인권문제로 압박한다고 주장

○ 대미 비난은 상당히 자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3~2014년 신년연설에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협박한 것과 비교할 때는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
- “비열한 인권소동”, “대조선 적대시 정책”,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 하려는 기도” 등 상투적인 비난에 그침

○ 적극적 외교관계 구축 노력 피력

-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유대와 연대성을 백방으로 강화”,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두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 등을 언급

IV. 2015년도 부문별 전망

1. 정치

-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당사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당 중심 정치’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당사업의 핵심 과제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강화’, ‘당대열의 순결성 보장’ 등 조직사상적 과제였음
 - 세대교체와 종파청산이라는 조직사상적 과제가 일정수준 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 하에, 2015년에는 주요정책을 당(중앙)이 구상하고 입안하여 당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할 것임
 - ※ 군부도 앞으로는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
 - 이러한 맥락에서 당정치국 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이 자주 개최되고 이 회의들을 통해 주요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대외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상교양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임
 - 김정은의 위대성 교양과 더불어 김정은의 애민적 리더십(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후대사랑)을 강조할 것임
 - 4대 교양 사업을 중심으로 전사회적으로 사상통제와 검열을 진행할 것임
- 당창건 70주년을 선전하기 위해 대중적 동원운동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조만간 김정은의 ‘조선속도’에 기반한 ‘000일 전투’ 등 노력동원의 궤기 예상
- 김정은 정권의 ‘당 중심 정치’의 강화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의 복원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점차 주요 엘리트들의 권한 강화로 이어져 김정은 권력확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유훈통치라는 정치적 허니문이 끝났고 권력과 이권을 향한 엘리트들의 경쟁과 갈등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므로, 당 중심 정치와 김정은 유일영도 간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음

2. 경제

-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과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어 북한 경제는 대체로 현상 유지 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북한 경제는 국영경제와 사경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일반 주민은 사경제에서 생계를 해결하고 권력층 및 주요 지지층은 국영경제를 유지하는 상태
 - 신년사에서 드러나는 경제정책은 국영경제의 운영방향에 대한 것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국영경제의 획기적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
 - 사경제의 자생적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 당국은 사경제에 대해 대체로 유화적인 태도 견지
 - 대중국 광산물 수출 감소로 국영경제에 들어오는 외화수입이 다소 감소할 수도 있으나, 임가공 의류 수출, 해외 노동자 송출, 관광객 유치 확대 등으로 어느 정도 대응 가능

- 개혁·개방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등 경제관리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할 뜻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영 산업의 전반적 낙후성과 국영기업의 본원적 한계를 고려할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
 - 경제특구와 개발구 등 개방정책은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만 실제적 추진 가능
 - 또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더라도 특구와 개발구 개발에는 실무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장 개방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하는 등 경협 채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 경제위기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

3. 사회·문화

- 2015년 사회문화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 전망 가능
 - 첫째, 김정은 리더십 강화와 당 중심의 통치체제 안정화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적·물리적 통제 강화
 - 둘째,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론에 입각한 체육·과학·건설·관광 등 4대 부문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 셋째, 자본주의 문화와 정보 유입에 따른 도시의 변화와 계층화의 빠른 진행
- 사회에 대한 사상적·물리적 통제 강화
 - ‘4대 교양(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과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사상전’을 연초부터 각 단위 및 부문별로 독려할 것임
 - 직업동맹, 보위 부문, 조직 부문, 교육 부문 및 청년동맹 등 각 기관·단체 별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사상 중시와 사상 선행 원칙을 강조할 가능성
- 체육·과학·건설·관광 등 4대 부문 중심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론을 당창건 70돌에 맞게 보다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이후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차원에서 건설·체육·과학·관광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마식령속도’에 이어 ‘조선속도’, ‘김정은 공격정신’ 등의 구호를 기초로 건설, 체육, 과학, 관광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 전개할 것임
- 특히 당창건 70돌을 기념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이권을 둘러싼 권력기관 경쟁과 부실시공의 부작용이 2014년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스포츠를 통해 대내외 이미지 구축, 체육행사를 직접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주민친화형 이미지 홍보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아낌없는 과학기술 투자” 강조하여 과학 관련 시설 증설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외화벌이 수단으로 관광 적극 활용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2015년에도 내놓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첫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추진이 전사회적인 과업으로 강조되면서 건설 동원을 통한 사회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자본주의 문화 유입에 따른 도시 변화의 지속

- 민간투자를 통한 건설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건설시장은 자재거래, 인력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시장화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건설로 인해 도시공간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과 지위에 따른 거주 계층화 확대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임
- 주택 거래가격의 상승과 연동된 물가상승에 따라 빈부의 차가 확대

4. 군사

○ 인민군대의 사상사업 강화와 당의 유일적 영군체제를 강조

- 2012년부터 강조된 당에 의한 군의 통제와 군의 충성심 유발에 초점
- 올해 인민군대가 당의 홍위군(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오중흡7연대 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
- 병진노선 추구를 위해 국방공업부분의 최첨단 무장장비의 개발 의도를 직접 반영
 -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공세적 군사력 확대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
 -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구도와 남북한 대화결렬의 원인을 한미 군사훈련에 두고 공세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군사적 위기 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대규모 비상 군사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북한은 2015년을 “통일대전의 완성의 해”로 선포)

5. 대남

- 예년에 이어 강온양면 정책이 지속되며, 특히 2014년부터 드러난 강온 동시 전술이 강화될 전망
 -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 의지를 동시에 언급
 -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핵 억제력을 통한 대외정세 대응을 동시에 시사
- 2015년에는 지도자 김정은의 지시와 결정이 대남정책 및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대내 통치전략과 대남정책의 연관성이 높아졌고 연이은 숙청의 성공 및 핵·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김정은의 대남 자신감 증대
- 남측을 대내외적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속할 것이며 그 주요 의도는 다음과 같음
 -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며, 미국과 중국에 접근, 특히 중국을 견인하려는 대남정책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다양화된 통일·대남 정책을 통해 경제적 실리 획득에 활용, 남남갈등 촉진, 북한 내부 결속을 의도할 것

- 김정은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핵무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제4차 핵실험은 ‘비용-편익’ 간 계산에 의해 결정될 것
 -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는 단지 협상용이 아니라 붕괴되었던 남북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
 - 따라서 김정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의지는 지속될 것
 -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중대러 등 대외환경에 미칠 악영향 및 북한의 재정상황에 따른 선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 남북한 간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 및 교류 진전이 가능하나, 2015년 ‘남북관계의 긴장도’는 2014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 그 주요 이유는 북한의 대남 정책결정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김정은의 유일체제 강화 상황에서 조변석개할 수 있는 김정은의 대남통치 행태
 - 북측의 요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남한 정부의 원칙 및 한·미·일의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 국민과 인권 등을 매개로 한 국제사회의 반복 정서 강화 등 때문
- 해방 70년을 기점으로 남북한 각각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극적으로 화해 흐름이 조성될 수 있지만, 질적·구조적 측면에서 2015년 남북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 북한에 핵개발 수요가 존재하고 대내 경제 불안 및 권력과 이권 갈등 등으로 인한 대남 도발 가능성
 -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맞물린 한미 군사협력, 대북 심리전, 탈북자 문제, 한·중 FTA 체결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내 설치로 인한 북한인권 문제 이슈화 등을 빌미로 도발 가능성
- 전반적으로 대남 비난을 상당히 자제한 것은 긍정적 평가 가능
 - 우리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은 삼간 채, ‘통일’의 원칙과 ‘남북 회담’의 전제조건을 주요하게 언급한 점은 과거 신년사와 비교되는 측면
 - 특히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분위기 조성’을 말하면서 그 책임과 노력의 주체로 우리 정부를 지칭한 것은 과거 신년사와 같은 패턴

-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의 연동 가능성
 - 남북대화와 개선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강조
 -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적극 나서는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도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 가능
 -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는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는 미국에게 보내는 관계 개선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음

6. 대외

- 북한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갈 것임
 - 대외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 목표로, 과거 신년사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존엄’을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보아, 2015년 대외관계 개선의 목적은 인권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의 구축일 것으로 예상
 - 상반기까지는 유엔안보리 대북인권결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외교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
- 이와 연장선상에서 대일관계 개선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이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금년 3~5월 중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기 때문임
 - 북한은 이를 자국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비난할 것임
-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중·대러 관계개선 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 및 6자회담 참여를 위한 가시적 노력을 촉구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임
- 인권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한 번 언급되었는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으로 분석

-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비열한 인권소동’으로 간주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다자적 차원에서는 일부 협조의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로서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한국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체제 위협으로 간주,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한편으로 향후 정치범수용소 폐지와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안전 보장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소극적으로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임

V. 정책적 함의

1. 정세 판단 유의사항

- 전체적으로 체제 내적인 안정화와 대외 정세에 대한 수세적 방어 태도를 읽을 수 있음
 - 핵무기 보유 고수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갈등의 심화, 유엔인권결의안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국내적 입지 손상, 당창건 70돌에 맞는 정책 비전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 지원 획득의 어려움 등
 - 체제 내적으로 장성택 숙청 이후 당 중심의 통치체제를 안정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엘리트 세대 및 인적 교체가 진행 중
 - 2015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 위력’은 대내외로 처한 정세에 체제수호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반영
- 김정은 정권은 세대교체와 친정체제 구축으로 다소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임
 - 2014년 내내 진행된 장성택 세력 숙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임
 - 이제는 ‘당 중심 정치’를 정책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당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할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선군정치의 지속 또는 강화 여부와 상관 없이, 북한 정치가 위기관리체제에서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로 복원되고 있음을 시사
- 10월 당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만들기 위해 김정은의 경제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둘 것임
 - 대규모 전시성 사업과 시혜적 조치에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중·대러 경제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남북 (최)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과 북한의 대응 태도에 대한 분석과 준비 필요
 - 회담 개최의 진정성 여부를 신년사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신년사 내용과 그간 북한의 주장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회담 의제에 따라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음
- 신년사로 나타난 북한 정책기조에 대한 주변국의 예상 반응 파악 필요
 - 미국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일 것임
 - 미국은 북한이 2015년 통남봉미(通南封美) 정책을 통하여 남북대화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노리면서 한·미, 한·미·일 관계의 약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것임
 -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병진노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 위협의식을 제고할 것임
 - 미국은 북한의 군수생산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와 병진노선 지속 선언으로 인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압력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압력 수위를 높이고자 할 것임
 - 중국의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남북한 간 관계 개선 노력 등에 지지를 표한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북한은 2014년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러시아 및 일본과의 관

- 계 발전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올해는 다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음
-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대미 비난 메시지는 러시아 입장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함
 - 러시아는 김정은의 대남 제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남북 화해 구도에서 평화적 중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자 시도할 것임

2. 대북정책 추진방향

- 김정은 정권의 단기적 안정성과 구조적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북정책 추진 필요
 - 현재 북한체제는 시장화 80% 이상으로 과도기적 이행기에 진입한 상황
 - 현 북한체제는 향후 5년 내 중국식 개혁개방 또는 동구식 체제전환 또는 반개혁의 폭압체제(90년대)로의 회귀 중 하나로 귀결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섬
 - ‘전략적 무시’보다는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
- 통일리더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성되는 환경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 정상회담 추진에 관해서는 시간을 두고 북한의 진의를 좀 더 살펴봐야 함
 - 또한 조성되는 환경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
- 북한의 대화공세 또는 대남도발에 치밀한 대비와 대응 필요
 -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
 - 특히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따른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 조치 단행
 - 북한의 대남도발을 사전 억지 또는 즉각 대응태세 확립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남북 및 주변국의 지지 확보를 통한 남북한 신뢰 구축 기반 마련의 필요성
 - 남·북·중, 남·북·러 삼각경협의 적극적 추진 필요
 - 환경, 마약 등 비정치적 분야로 동북아 협력 강화하여 우회적으로 북한을 남북한 신뢰구축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인 필요

- 인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관련한 언급이 많은 것은 한국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특히 아동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문에서의 전략적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문별 대화가 성사될 경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자문제 등 인도주의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뤄낼 수 있어야 함

부록. 2015년 북한 신년사 원문

2015년 북한 신년사 발표(1.1)

조선중앙통신

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104(2015)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시는 신년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육성>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룡성변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당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속에서 전군과 온 사회에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이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 실전훈련의 불바람을 일으켜 모든 지휘관, 병사들과 군종, 병종부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 그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작전 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전군에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생활개선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개발완성하여 혁명무력의 질적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농업과 수산, 화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움으로써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 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장조국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기상으로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법으로 굴함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펼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쟁취한 우리의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입니다.

나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돛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돛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지난 7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올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돛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어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서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뉘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변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당창건 일흔돛을 맞는 올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모두가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며 적들이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모든 대대, 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로, 당중앙위원회의 프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과 고향집으로 꾸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버리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실천과 같이 하여 전투력을 다지고 자기 도와 군, 자기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과학전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

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밟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도처에 마련해 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생산과 기지운영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

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주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할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 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 시, 군 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보건부문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남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 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을 대축전장에 뿔뿔이 들어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어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어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뫼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는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씩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

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현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로골적인 주권침해행위로 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전란과 류혈참극이 계속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 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과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

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갑시다.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104(2015)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를 보내드렸습니다. (끝)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UC 15-01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02-2269-9917
인 쇄	2015년 1월
발 행	2015년 1월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